

첨단 과학지 <지금여기> 탄생

방건웅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필자가 취산 선생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귀국 후 80년대 후반에 정신세계사에서 발간된 선생의 번역서들을 보면서였다. 그 때는 이 방면의 책들을 번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특히 <나는 티베트의 라마승이었다>를 보면서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3권을 읽고 싶었는데, 정신세계사에 전화해 보니 선생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언제 책이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송순현 사장의 말이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필자가 3권을 번역하게 되는 인연으로 연결되었다.

그 후로 93, 94년 경인가 불쑥 필자에게 전화가 왔었다. “나 취산이요.” 하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여 유성의 음식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눈에서 빛이 난다는 것과 강한 기를 풍긴다는 것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일상적인 관념이나 사고방식에 매이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만한 나이의 노인들과는 유달리 보기 드물게 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자 노력하여 왔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길게 나눈 것도 아니고 술을 나눈 것도 아니었으나 20여 년 이상의 나이 차를 넘어서 금방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의기가 통하였다.

그 후 전화로 종종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상담을 하고 있던 집사람과도 자연스럽게 같이 교류가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집사람은 아바타를 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가운데 취산 선생은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지으면서 정신세계와 관련된 잡지를 펴낼 구상을 하시고 계셨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좋은 아이디어 없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당시 필자가 꽤 많이 수집해 두었던 신과학 분야의 자료들에 대해 아시고는 직접 필자의 연구실까지 방문하셨다. 관련 자료들을 보시더니 이런 책들을 토대로 잡지를 내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정신세계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듯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돌파구를 찾으신 모양이었다. 여러 권의 책들과 잡지들을 빌려 가겠다고 하시면서 덧붙여서 원고 집필이라던가 기획 등의 여러 측면에서 도와달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도 전문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선생께서 하시겠다는데야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흔쾌히 응답하였다.

어느 날인가는 가다가 들렀노라고 하시면서 잡지의 성격과 편집 방향, 출간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가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화제가 미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중에 결국 현존하는 것은 ‘Here and Now’ 뿐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제목으로 표현할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책이 나왔다고 보내온 것을 보니 제목이 말 그대로 ‘지금여기’ 아닌가. 고식적인 단어만 생각하고 있던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내사’라는 말도 매우 신선하게 비쳤다.

그 후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신과학 심포지움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 드리면서 “저는 가지 못하여도 취산 선생님은 저보다 여건이 나으시니 미국에 계신 동안에 한 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다녀오신 것이 아닌가. 몇 군데 그러한 심포지움을 다녀오시더니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피력하시고는 얼마 안 있어서 제1회 국제신과학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때 필자는 취산 선생의 추진력에도 놀랐지만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필자는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과도 교유가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취산 선생님은 참으로 인상 깊은 발자국을 남기고 가셨다. 떠나시는 날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면서 일을 추진하셨고 누워 계신 동안에도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사고를 재점검하면서 남아 있는 몇몇의 매듭을 풀어 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서 삶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 모습을 풀어나가지 않은 눈동자에서 여전히 빛나는 광채로 감지할 수 있었다.

선생께서 떠나실 때 ‘떠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벗겨지지 않지.’ 하시면서 갑갑해 하시는 듯하다가 편안하게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선생다우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음 생에는 걸림이 없는 삶을 통하여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시리라.

앞으로 새로운 세기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곧 닥쳐올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선구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선생께서 세기가 바뀌는 것을 보시고 가셨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선생은 전혀 애착이 없는 모습으로 가셨다. 초연하게. 오늘날, 삶과 자아, 그리고 지구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일궈진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선생이 떠나신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분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이다. 선생께서 뿌려 놓으신 그 씨앗이 계속 자라 시대의 빛이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취산 선생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과학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전파한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그 깊은 이해와 통찰이 어디서 얻어진 것일까? 필자로서는 참으로 큰 원군을 잃은 느낌이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는 것, 그리고 생과 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또한 허상이기도 하다. 취산 선생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있으리라. 그 때, 다시 한번 크게 웃을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한바탕 휘젓고 갔노라고.

1999. 10. 19.

취산 선생의 떠나심을 아쉬워하며, 방건웅